

일부 대학생들의 인터넷 음란물 접촉과 성행동

이 인 숙^{1*} · 조 주 연²

¹극동정보대학 간호과
²수원과학대학 간호과

Exposure to internet pornography and sexual behaviors of college students

Inn Sook Lee^{1*} · Ju Yeon Cho²

¹Department of Nursing, Keukdong College
²Department of Nursing, Suwon Science College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 of sexual behaviors of college students according to internet pornography contact.

Methods: Subjects consisted of 472 students of K college located in chungcheongbuk-do. Th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from May, 21 to May, 31, 2007.

Results: Eighty-seven percent (87.3%) of respondents contacted internet pornography. As for the first time they contacted it, forty-eight percent(48.3%) contacted it when they were middle school students. Forty-three percent(43.6%) contacted it one time per several months and twenty-one percent(21.2%) contacted it within 10 minutes. Sexual behaviors(hand grasping, hugging, kiss, masturbation, coitus, pregnancy, love expression in public place)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internet pornography contact experience, period, frequency, and time.

Conclusion: College administration should investigate sexual behavior patterns according internet pornography contact and provide all college students regular sexual health promotion program.

Key words: College students, internet pornography, sexual behaviors

(2007년 10월 24일 접수, 12월 21일 채택)

*Corresponding author : Inn Sook Lee, Department of Nursing, Keukdong College, 154-1 Danpyung-Ri Gamgok-Myeun Eumsung-Gun Chungbuk 369-703 Korea
Tel: 82-43-879-3428 Fax: 82-43-879-3426 E-mail: ilee001@kdc.ac.kr

1. 서 론

인터넷의 보급은 일상생활에서의 편리함과 더불어 새로운 사회적 교류의 장을 열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인터넷 사용의 부정적 효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 중 대표적인 문제가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는 음란물이며 음란물 접촉에 의한 성 관련 문제이다(김정남과 우혜자, 2001). 국내 유수의 커뮤니케이션사와 신문사가 공동으로 1,09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해 하루에 한 번 이상 불륜이나 성적 유희를 일으키는 스팸메일을 받고 있는 사람이 전체의 66%에 달해 대다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섹스 메일'에 시달리고 있으며 특히 매일 3건 이상의 성 관련 스팸메일을 받고 있는 경우도 전체의 55%에 이르는 등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성관련 메일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 도달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양돈규와 조남근, 2004, 재인용).

인터넷에 의한 음란물은 성적 충동을 유발시키고, 성도덕을 약화시키며, 성에 대한 비정상적이고 잘못된 지식과 사고를 심어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성행동에 대한 왜곡된 태도를 발달시켜 키스나 성관계는 물론이고 성희롱이나 강간과 같은 성범죄에 대한 억제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재홍과 지영단, 2002). 음란물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들에서는 부정적 측면의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음란매체와 연관된 학생들의 성의식과 성행동에 관한 연구결과, 음란매체에 대한 노출정도가 많을수록 성태도가 개방적이고, 실천횟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이기수, 2000). 또한 인터넷상에서의 음란물 접촉은 성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형성하고, 이것은 다시 성비행을 이끌며 음란물 접촉량이 많을수록 적극적인 성행동이 나타났다(김미경, 2000). 궁극적으로는 인터넷 음란물로 인해 결혼과 가정에 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Manning, 2006), 온라인 성범죄(Quayle et al., 2006), 동성애로 인한 HIV 감염(Golden et al., 2007) 등 사회적이고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파생되는 강력한 수단으로 이용되므로 이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렇듯 최근 인터넷 음란물 접촉과 관련하여 성의식, 성행동, 성폭력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으나 이러한 연구주체의 대상이 대부분 아동과 청소년이었을 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음란물과 성행동을 조사한 연구는 극소수에 불과하였다(주리아 등, 2002). 이는 대학생이 미성년 시기가 아닌 만큼 그들의 음란물 시청이나 성의식, 성행동을 간섭하거나 제재한다고 하여 효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

자유의 범위가 커지고 이성교제가 자유로워지는 대학생 시기는 특히 성 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성에 관한 가치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주체적인 판단이나 선택에 기초한 성행동이 준비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올바른 성의식과 성행동을 준비하기 위한 성교육이 주로 초·중·고등학교 때 집중되어 있으므로 대학생 시기의 성지식 습득은 인터넷을 주로 이용하게 되는 것이다(최명숙과 하나선, 2004).

대학생은 졸업 후 곧 경제활동을 시작할 예비 사회인이며, 머지않아 한 가정을 이끌어 갈 남편과 아내로서의 성숙한 역할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대학생 시기를 단지 성인기로 간주하기 보다는 이들에게 좀더 실제적이고도 체계적인 성교육을 제공하여 건전한 성의식과 성태도를 확립하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인터넷 음란물 접촉실태와 이들의 성행동을 살펴보고 인터넷 음란물 접촉에 따른 성행동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대학 내 올바른 성교육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II.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인터넷 음란물 접촉실태에 따른 성행동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07년 5월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충청북도 E군에 소재한 K 대학 대학생 47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3. 연구도구

1) 인터넷 음란물

음란물(pornography)이란 음탕하고 난잡한 내용을 담은 책이나 그림, 사진, 영화, 비디오테이프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네이버 어학사전),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음란물, 즉 인터넷 음란물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며 음란사진, 음란소설, 음란동영상, 음란게임, 음란채팅을 의미한다. 인터넷 음란물 접촉에 관한 도구는 선행연구들(김도신 2004; 오건호, 2003; 임택심, 2004)에서 사용된 여러 도구를 참고하여 인터넷 음란물의 접촉 유무, 인터넷 음란물 처음 접촉한 시기, 접촉 빈도, 접촉 시 소요시간 등 4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 성행동

성행동이란 인간의 성과 관련된 모든 행동을 포함하며 이성교제, 자위행위, 성충동, 키스, 포옹, 성행위, 동성애, 성폭력, 성희롱, 성도착, 매춘, 원조교제 등을 말한다(김막희, 2003). 본 연구에서는 이성교제 시 상대방의 손잡기, 포옹, 키스, 자위행위, 성관계, 임신 및 공공장소에서의 애정표현을 의미한다. 성행동에 관한 도구는 김미경(2000)과 김막희(2003)의 성행동 도구를 참고하여 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의 내용은 이성의 손을 잡아본 경험, 포옹경험, 키스경험, 자위행위경험, 성 관계 경험, 임신경험, 공공장소에서 애정표현 경험이었으며 각각의 행동에 대해경험이 있는 경우 '예', 없는 경우 '아니오',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 '모르겠다'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4.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를 위해 K대학의 4개 계열 10개 과 교수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이에 참여할 것을 허락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교수의 강의시간 중이나 강의 종료 후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배포하고 작성하게 한 후 바로 수거하였다. 처음 배포했던 500부의 설문지 중 490부(98%)를 수거하였으며 이 가운데 응답이 불성실한 18부를 제외한 472부(94%)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5.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인터넷 음란물 접촉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인 단 순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또한 인터넷 음란물 접촉실태에 따른 성행동의 차이는 χ^2 -test를 사용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는 남학생 56.1%, 여학생이 43.9%였으며, 학년에 있어서 1학년이 64.2%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2학년 25.6%, 3학년 10.2%의 순이었다. 계열에 있어서는 보건계열 학생이 33.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공학계열 30.7%, 인문사회계열 18.9%, 예체능계열 16.5%의 순이었다(표 1).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472)

특성	구분	N(%)
성별	남	265(56.1)
	녀	207(43.9)
학년	1	303(64.2)
	2	121(25.6)
	3	48(10.2)
계열	보건	160(33.9)
	공학	145(30.7)
	인문사회	89(18.9)
	예체능	78(16.5)

2. 대상자의 인터넷 음란물 접촉실태

대상자의 인터넷 음란물 접촉경험은 87.3%였으며, 인터넷 음란물을 처음 접촉한 시기는 '중학교 때'가 48.3%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고등학교' 20.3%, '초등학교' 15.9%, '대학입학 후' 2.8%의 순으로 나타났다. 접촉빈도는 '몇 달에 한 번 정도'가 43.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일 주일에 한 번 정도' 18.6%, '한 달에 한 번 정도' 15.0%, '일 주일에 2-3번 정도' 6.6%, '거의 매일' 2.1%, '일 주일에 4-5번 정도'가 1.3%였다. 1회 접촉시간은 '10분 이내'가 21.2%로 가장 많았으며 '보자마자 끈다' 21.0%, '잘 모르겠다' 19.1%, '10-30분 이내' 17.4%, '30분-1시간' 5.9%, '1시간 이상'이 2.8%였다.

〈표 2〉 대상자의 인터넷 음란물 접촉실태 (n=472)

특성	구분	N(%)
접촉경험	유	412(87.3)
	무	60(12.7)
처음 접촉시기	초등학교	75(15.9)
	중학교	228(48.3)
	고등학교	96(20.3)
	대학입학 후	13(2.8)
접촉빈도	거의 매일	10(2.1)
	일 주일에 한번 정도	88(18.6)
	일 주일에 2-3번 정도	31(6.6)
	일 주일에 4-5번 정도	6(1.3)
	한 달에 한 번 정도	71(15.0)
1회 접촉시간	몇 달에 한 번 정도	206(43.6)
	보자마자 끈다	99(21.0)
	10분 이내	100(21.2)
	10-30분	82(17.4)
	30분-1시간	28(5.9)
	1시간 이상	13(2.8)
	잘 모르겠다	90(19.1)

3. 대상자들의 성행동

대상자의 성행동을 분석해 본 결과, 이성교제 시 ‘손을 잡아 본’ 경험은 78.0%였고 ‘이성과의 포옹’ 경험은 71.2%, ‘키스’ 경험은 60.6%, ‘자위행위’ 경험은 35.4%, ‘성관계’ 경험은 24.6%, ‘임신을 시켰거나 임신을 한’ 경험은 5.1%였으며 ‘공공장소에서 애정표현’ 경험은 19.7%로 나타났다(표 3).

〈표 3〉 대상자들의 성행동 (n=472)

내용	예	아니오	모르겠다
	N(%)	N(%)	N(%)
이성교제 시 상대의 손을 잡아 보았다.	368(78.0)	69(14.6)	35(7.4)
이성교제 시 포옹을 해 보았다.	336(71.2)	97(20.6)	39(8.3)
이성교제 시 키스를 해 보았다.	286(60.6)	141(29.9)	45(9.5)
자위행위를 해 본 경험이 있다.	167(35.4)	245(51.9)	60(12.7)
성 관계를 가진 경험이 있다.	116(24.6)	319(67.6)	37(7.8)
(남학생의 경우) 임신을 시켰거나 (여학생의 경우) 임신을 한 적이 있다.	24(5.1)	416(88.1)	32(6.8)
공공장소일지라도 애정표현을 숨기지 않고 한다.	93(19.7)	276(58.5)	103(21.8)

4. 인터넷 음란물 접촉실태에 따른 성행동의 차이

1) 인터넷 음란물 접촉 유무에 따른 성행동

인터넷 음란물 접촉 유무에 따른 성행동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인터넷 음란물을 접촉한 군의 ‘자위행위’(χ²=42.34, p=.000), ‘성 관계’(χ²=9.92, p=.007), ‘공공장소에서 애정표현’(χ²=11.17, p=.004) 경험이 인터넷 음란물을 접촉한 경험이 없는 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

〈표 4〉 인터넷 음란물 접촉 경험에 따른 성행동의 차이 (n=472)

내용	구분	접촉경험		χ ²	p
		유(N=412)	무(N=60)		
이성교제 시 상대의 손을 잡아 보았다.	예	325(78.9)	43(71.7)	1.62	.445
	아니오	58(14.1)	11(18.3)		
	모르겠음	29(7.0)	6(10.0)		
이성교제 시 포옹을 해 보았다.	예	299(72.6)	37(61.7)	3.15	7.207
	아니오	80(19.4)	17(28.3)		
	모르겠음	33(8.0)	6(10.0)		
이성교제 시 키스를 해 보았다.	예	255(61.9)	31(51.7)	2.57	.277
	아니오	118(28.6)	23(38.3)		
	모르겠음	39(9.5)	6(10.0)		
자위행위를 해 본 경험이 있다.	예	166(40.3)	1(1.7)	42.34	.000***
	아니오	191(46.4)	54(90.0)		
	모르겠음	55(13.3)	5(8.3)		
성 관계를 가진 경험이 있다.	예	111(26.9)	5(8.3)	9.92	.007**
	아니오	269(65.3)	50(83.3)		
	모르겠음	32(7.8)	5(8.3)		
(남학생의 경우) 임신을 시켰거나 (여학생의 경우) 임신을 한 적이 있다.	예	24(5.8)	5(8.3)	3.84	.147
	아니오	361(87.6)	55(91.7)		
	모르겠음	27(6.6)	5(8.3)		
공공장소일지라도 애정표현을 숨기지 않고 한다.	예	87(21.1)	6(10.0)	11.17	.004**
	아니오	229(55.6)	47(78.3)		
	모르겠음	96(23.3)	7(11.7)		

p<.01, *p<.001

<표 5> 인터넷 음란물 접촉시기에 따른 성행동의 차이

(n=412)

내용	구분	접촉시기			χ ²	p
		초등 (N=75)	중학 (N=228)	고등이후 (N=109)		
이성교제 시 상대의 손을 잡아 보았다.	예	63(84.0)	176(77.2)	86(78.9)	4.78	.347
	아니오	8(10.7)	38(16.7)	12(11.0)		
	모르겠음	4(5.3)	14(6.1)	11(10.1)		
이성교제 시 포옹을 해 보았다.	예	60(80.0)	159(69.7)	80(73.4)	4.47	.376
	아니오	11(14.7)	51(22.4)	18(16.5)		
	모르겠음	4(5.3)	18(7.9)	11(10.1)		
이성교제 시 키스를 해 보았다.	예	60(80.0)	129(56.6)	66(60.6)	13.71	.006**
	아니오	10(13.3)	76(33.3)	32(29.4)		
	모르겠음	5(6.7)	23(10.1)	11(10.1)		
자위행위를 해 본 경험이 있다.	예	45(60.0)	96(42.1)	25(22.9)	27.44	.000***
	아니오	21(28.0)	102(44.7)	68(62.4)		
	모르겠음	9(12.0)	30(13.2)	16(14.7)		
성 관계를 가진 경험이 있다.	예	37(49.3)	55(24.1)	19(17.4)	27.45	.000***
	아니오	31(41.3)	158(69.3)	80(73.4)		
	모르겠음	7(9.3)	15(6.6)	10(9.2)		
(남학생의 경우) 임신 시켰거나 (여학생의 경우) 임신한 적이 있다.	예	11(14.7)	10(4.4)	3(2.8)	15.62	.008**
	아니오	57(76.0)	206(90.4)	98(89.9)		
	모르겠음	7(9.3)	12(5.3)	8(7.3)		
공공장소일지라도 애정표현을 숨기지 않고 한다.	예	24(32.0)	46(20.2)	17(15.6)	7.75	.119
	아니오	37(49.3)	126(55.3)	66(60.6)		
	모르겠음	14(18.7)	56(24.6)	26(23.9)		

Fisher's exact test, **p<.01, ***p<.001

2) 인터넷 음란물 접촉시기에 따른 성행동

인터넷 음란물 접촉시기에 따른 성행동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 때 처음으로 인터넷 음란물을 접착한 군의 '키스'(χ²=13.71, p=.006), '자위행위'(χ²=27.44, p=.000), '성 관계'(χ²=27.45 p=.000), '임신'(χ²=15.62, p=.008) 경험이 중학교나 고등학교 이후에 인터넷 음란물을 처음 접착한 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5>.

3) 인터넷 음란물 접촉빈도에 따른 성행동

인터넷 음란물 접촉빈도에 따른 성행동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인터넷 음란물의 접촉빈도에 있어 '거의 매일', '일 주일에 한번 정도', '일 주일에 2-3번 정도', '일 주일에 4-5번 정도'는 자주 접착하는 군으로, '몇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은 가끔 접착하는 군으로 하여 비교한 결과 인터넷 음란물을 자주 접착하

는 군에서 이성의 '손을 잡아 본' 경험(χ²=6.38, p=.038), '포옹' 경험(χ²=6.93, p=.033), '자위행위' 경험(χ²=60.38 p=.000), '성 관계' 경험(χ²=20.46, p=.000), '임신' 경험(χ²=12.96, p=.002)이 인터넷 음란물을 가끔 접착하는 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6>.

4) 인터넷 음란물 접촉시간에 따른 성행동

인터넷 음란물 접촉시간에 따른 성행동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인터넷 음란물 접촉시간에 있어 '보자마자 끈다', '10분 이내'는 단시간 접착하는 군으로, '10-30분', '30-1시간', '1시간 이상'은 장시간 접착하는 군으로 하여 비교한 결과 장시간 접착한 군의 '자위행위'(χ²=61.52 p=.000), '성 관계'(χ²=13.61, p=.001), '임신'(χ²=6.71, p=.036) 경험이 단시간 접착하는 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7>.

〈표 6〉 인터넷 음란물 접촉빈도에 따른 성행동의 차이

(n=412)

내용	구분	접촉빈도		χ^2	p
		자주(N=135)	가끔(N=277)		
이성교제 시 상대의 손을 잡아 보았다.	예	97(71.9)	228(82.3)	6.38	.038*
	아니오	24(17.8)	34(12.3)		
	모르겠음	14(10.4)	15(5.4)		
이성교제 시 포옹을 해 보았다.	예	89(65.9)	210(75.8)	6.93	.033*
	아니오	29(21.5)	51(18.4)		
	모르겠음	17(12.6)	16(5.8)		
이성교제 시 키스를 해 보았다.	예	78(57.8)	177(63.9)	3.73	.157
	아니오	39(28.9)	79(28.5)		
	모르겠음	18(13.3)	21(7.6)		
자위행위를 해 본 경험이 있다.	예	85(63.0)	81(29.2)	60.38	.000***
	아니오	26(19.3)	165(59.6)		
	모르겠음	24(17.8)	31(11.2)		
성 관계를 가진 경험이 있다.	예	50(37.0)	61(22.0)	20.46	.000***
	아니오	68(50.4)	201(72.6)		
	모르겠음	17(12.6)	15(5.4)		
(남학생의 경우) 임신을 시켰거나 (여학생의 경우) 임신한 적이 있다.	예	13(9.6)	11(4.0)	12.96	.002**
	아니오	107(79.3)	254(91.7)		
	모르겠음	15(11.1)	12(4.3)		
공공장소일지라도 애정표현을 숨기지 않고 한다.	예	33(24.4)	54(19.5)	2.34	.303
	아니오	68(50.4)	161(58.1)		
	모르겠음	34(25.2)	62(22.4)		

Fisher's exact test, *p<.05, **p<.01, ***p<.001

〈표 7〉 인터넷 음란물 접촉시간에 따른 성행동의 차이

(n=412)

내용	구분	접촉시간		χ^2	p
		단시간(N=289)	장시간(N=123)		
이성교제 시 상대의 손을 잡아 보았다.	예	234(81.0)	91(74.0)	2.97	.214
	아니오	38(13.1)	20(16.3)		
	모르겠음	17(5.9)	12(9.8)		
이성교제 시 포옹을 해 보았다.	예	212(73.4)	87(70.7)	1.56	.468
	아니오	57(19.7)	23(18.7)		
	모르겠음	20(6.9)	13(10.6)		
이성교제 시 키스를 해 보았다.	예	181(62.6)	74(60.2)	0.77	.674
	아니오	83(28.7)	35(28.5)		
	모르겠음	25(8.7)	14(11.4)		
자위행위를 해 본 경험이 있다.	예	84(29.1)	82(66.7)	61.52	.000***
	아니오	169(58.5)	22(17.9)		
	모르겠음	36(12.5)	19(15.4)		
성 관계를 가진 경험이 있다.	예	65(22.5)	46(37.4)	13.61	.001***
	아니오	205(70.9)	64(52.0)		
	모르겠음	19(6.6)	13(10.6)		
(남학생의 경우) 임신을 시켰거나 (여학생의 경우) 임신한 적이 있다.	예	14(4.8)	10(8.1)	6.71	.036*
	아니오	261(90.3)	100(81.3)		
	모르겠음	14(4.8)	13(10.6)		
공공장소일지라도 애정표현을 숨기지 않고 한다.	예	59(20.4)	28(22.8)	0.59	.766
	아니오	160(55.4)	69(56.1)		
	모르겠음	70(24.2)	26(21.1)		

*p<.05, ***p<.001

IV. 고 찰

정보화 산업사회에서는 인터넷 음란물への 폭로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과생되는 성관련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특히, 성의식이 확고히 형성되지 않는 청소년 시기에는 인터넷 음란물로 인해 부정적인 성의식과 성태도가 형성되고 성 관련 범죄까지 우려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 인터넷 접촉실태를 살펴보면, 대상자의 인터넷 음란물 접촉 경험은 87.3%였다. 이는 텍사스의 일 대학 대학생을 대상으로 했던 Goodson et al(2001)의 연구에서 나타난 43.5%에 비해 높은 결과였다. 물론 Goodson et al(2001)의 연구가 6년 전에 수행되어 최근의 상황과는 많은 차이가 있으나 이러한 결과를 통해 그간 인터넷의 보급이 얼마나 급속도로 이루어졌으며 이와 함께 인터넷 음란물의 확산 또한 얼마나 빠르게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있는 단적인 결과라 생각한다. 인터넷 음란물의 처음 접촉 시기는 중학교 때가 48.3%로 가장 많았으며 접촉빈도는 몇 달에 한 번 정도가 43.6%로 가장 많았고, 1회 접촉시간은 10분 이내가 21.2%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음란물 접촉 경험은 초등학교 20.3%(김정남과 우해자, 2001), 중학생 79.4%(김영혜 등, 2000), 고등학교 61.0%(백경신과 정승교, 2006)과 비교해 볼 때, 상급학교로 진학할수록 인터넷 음란물 접촉경험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접촉빈도도 일주일에 한번 이상이 20.7%로 나타났으며, 이는 인터넷 중독자의 20% 이상이 사이버섹스 중독증을 보이고 있다는 연구(Young, 1996)에서 지적하고 있는 음란물 상습접촉의 문제점이 우려하는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인터넷 사용이 증가하면서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문제가 등장하였으며, 인터넷 중독의 하위유형으로서 사이버 섹스 중독이 포함된다(이정윤과 이명화, 2003). 사이버 섹스는 음란물 시청으로부터의 자극과 실제적인 성접촉의 중간단계로 접하게 되었다(Ross, 2005). 따라서 지속적인 인터넷 음란물 노출은 사이버 섹스 중독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으므로(Cordonnier, 2006) 대학생들이 건전한 성의식을 가진 성인으로서 생활해 갈 수 있도록 대학 당국은 이들의 음란물 접촉 실태를 확인하고 이들에게 좀더 바람직한 성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 인터넷 음란물 접촉경험에 따른 성행동은 인터넷 음란물을 접촉한 군의 자위행위, 성관계, 공공장소에서의 애정표현 경험이 인터넷 음란물을 접촉한 경험이 없는 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음란물 접촉유무와 제반 변수들과의 관련성에 대한 윤분희 등(2002)의 연구에서 자위행위, 성경험, 이성교제, 학교성적, 흡연, 음주가 모든 음란물의 접촉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것과 부분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이는 음란물을 접촉해 본 학생들의 경우 접촉한 경험이 없는 학생들에 비하여 성적 호기심과 성 경험을 해보고 싶은 욕구가 좀더 강하여 이성교제시 좀더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성태도를 보인 것이라 사료된다. 실제로 인터넷을 통해 성적인 내용에 접한 경험이 있는 대학생들 중 온라인 상의 성적인 내용을 보면서 자위행위를 한 경우는 15.0%였고 온라인 상의 상대와 사이버 섹스를 했다는 응답은 12.1%나 되었다. 특히 남학생들의 경우 온라인 상에서 사이버 섹스를 하면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이용하는 경우가 여학생에 비해 많았다(Patricia et al., 2001). 또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상대와 성관계를 가진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성관계를 가지기까지 걸린 기간을 조사한 결과 62.0%가 1일 이내이고 6일 이내에 성관계를 했다는 청소년은 81.3%나 되었다(오영근과 이춘화, 2001).

인터넷 음란물은 성적 각성을 돕는 도구로서 이용되며, 특히 부정적인 심리사회적 특성을 지닌 대상자들이 많이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나아가서는 성범죄의 위험까지 야기할 수 있는 매체로서의 역기능을 우려하고 있다(Quayle et al., 2006). 따라서 인터넷 음란물의 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음란물 접촉을 제어할 수 있는 컴퓨터 제어 프로그램의 적용은 초등학교 시기에 효과적이며(김정남과 우해자, 2001), 대학생 시기에는 행위이론적 개념을 기반으로 음란물 접촉을 통제할 수 있는 성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인터넷 음란물 접촉시기에 따른 성행동은 초등학교 때 처음으로 인터넷 음란물을 접촉한 군의 키스, 자위행위, 성관계 및 임신경험이 중학교나 고등학교 이후에 처음으로 인터넷 음란물을 접촉한 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인터넷 음란물을 중학교 이전에 처음으로 접촉한 학생이 중학교 이후

에 접촉한 학생보다 성행동이 개방적이고 허용적이었던 김막희(200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또한 남자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영혜 등(2000)의 연구에서도 컴퓨터 음란물 노출군이 비노출군에 비해 성에 대한 호기심이 높고 혼전성교에 대해 허용적이라고 하였다. 이렇듯 음란물 접촉경험이 증가할수록 성 갈등과 성 비행이 증가하고, 성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를 가지므로(이명화, 1998) 인터넷 음란물 접촉은 성 관련 문제를 야기하는 영향요인으로 볼 수 있겠다.

인터넷 음란물 접촉빈도에 따른 성행동은 인터넷 음란물을 자주 접촉하는 군에서 이성과의 손잡기, 포옹, 자위행위, 성관계 및 임신 경험이 가끔 접촉하는 군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터넷 음란물 접촉시간에 따른 성행동에 있어서는 장시간 인터넷 음란물을 접촉하는 군의 자위행위, 성관계, 임신경험이 단시간 접촉하는 군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 음란물 접촉시간에 따른 성행동을 조사한 김윤숙(2003)의 연구에서 인터넷 음란물 접촉시간을 15분 미만과 15분 이상으로 집단화하여 살펴본 결과, 인터넷 음란물을 접촉한 시간이 많은 집단이 적은 집단보다 자위행위와 성관계의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또한 음란물 접촉횟수가 많을수록 성행동이 부정적이었으며 음란물 접촉량이 많은 청소년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신체적 접촉이나 이성간의 성적접촉에 대해 보다 허용적인 경향이 강했던 연구결과(김미경, 2000)와 일치하고 있다. 윤진과 박윤창(1995)의 연구에 의하면 음란물을 상습적으로 접촉할수록 혼전성관계에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했는데, 이는 낙태로까지 연장되어 음란물을 상습적으로 접촉할수록 낙태에 대한 관대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사회학습이론에 의하면 인간은 타인이 하는 행동을 모방학습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음란물 접촉량이 많은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성행위 등을 모방 학습할 가능성이 더욱 높고 이러한 잘못된 학습된 행동을 실제생활에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김미경, 2000, 재인용). 즉, 음란물 접촉소요 시간이 많을수록 성태도가 허용적이고 개방적이게 되며 이러한 성태도로 인해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음

란물 접촉량이 많은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좀 더 자유분방한 성행위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음란물 반대론자들이 제기하는 문제점들을 보면 음란물은 점점 폭력적이고 변태적인 것으로 변해감으로써 이러한 부도덕한 내용이 사회의 성범죄를 조장한다는 지적뿐만 아니라 음란물에 장기간 노출되면 남녀 모두 폭력적인 음란물에 대한 관용이 증가하고 자기 파트너에 대한 신체 외모 및 성적 수행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게 되고 결혼의 가치까지도 의심하게 만들며 역시 남성들은 여성들에 대한 공격적인 태도가 증가함이 밝혀졌다(김막희, 2003, 재인용).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인터넷 음란물을 접촉한 경험이 있는 학생, 초등학교 때 처음으로 인터넷 음란물을 접촉한 학생, 자주 접촉하는 학생, 장시간 접촉하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다양한 성행동을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 시기는 초기 성인기인 만큼 이들의 성적인 부분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하고 타인이 간섭할 권리는 없다. 그러나 대학생 시기는 아직 교육과정 내에 있는 시기이고, 졸업 후 곧 이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혹은 한 가정의 부모로서의 원만한 인격을 갖춰 나가야 할 시기에 놓인 만큼 재학기간 동안 인터넷 음란물 접촉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예비 사회인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학교 차원에서의 올바른 성교육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 대학의 건강관리자들이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인터넷 음란물 접촉실태를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성행동의 변화를 확인함으로써 이들에게 실제적이고도 효과적인 성교육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해 나가야 할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생의 인터넷 음란물 접촉실태에 따른 성행동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연구 기간은 2007년 5월 21일부터 5월 31일까지였으며 충청북도 E군에 소재한 K 대학 대학생 472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음란물 접촉실태와 성행동에 관한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인터넷 음란물 접촉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단순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인터넷 음란물 접촉실태에 따른 성행동의 차이는 χ^2 -test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인터넷음란물 접촉 경험은 87.3%였으며 처음 접촉시기는 중학교 때가 48.3%로 가장 많았다. 접촉빈도는 몇 달에 한 번 정도가 43.6%로 가장 많았으며 1회 접촉시간은 10분 이내가 21.2%로 가장 많았다.
2. 인터넷 음란물 접촉경험에 따른 성행동의 차이는 인터넷 음란물을 접촉한 경험이 있는 군의 자위행위($p=.000$), 성 관계($p=.007$), 공공장소에서 애정표현 경험($p=.004$)이 인터넷 음란물을 접촉한 경험이 없는 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음란물 접촉시기에 따른 성행동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 때 처음으로 인터넷 음란물을 접촉한 군의 키스($p=.006$), 자위행위($p=.000$), 성 관계($p=.000$), 임신($p=.008$) 경험이 중학교나 고등학교 이후에 인터넷 음란물을 처음으로 접촉한 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인터넷 음란물 접촉빈도에 따른 성행동은 인터넷 음란물을 자주 접촉하는 군이 가끔 접촉하는 군보다 '이성의 손을 잡아 본' 경험($p=.038$), '포옹'($p=.033$), '자위행위'($p=.000$), '성 관계'($p=.000$), '임신'($p=.002$) 경험이 유의하게 높았다. 인터넷 음란물 접촉시간에 따른 성행동의 차이는 장시간 접촉하는 군이 단시간 접촉하는 군보다 '자위행위'($p=.000$), '성관계'($p=.001$), '임신'($p=.036$) 경험이 유의하게 높았다.

이상과 같은 결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장기적인 인터넷 음란물 접촉으로 인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음란물 중독으로 이행되는 과정을 예측할 수 있는 관련요인을 확인해나가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2. 인터넷 음란물 접촉에 효과적인 대처방안을 포함한 지속적인 대학생 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각 대학 차원에서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고재홍, 지영단 (2002). 청소년의 음란물 접촉과 잘못된 강간통념 수용간의 매개변인과 수용변인의 역할. 청소년상담연구, 10(1), 87-105.

김도신 (2004). 초등학생의 컴퓨터 음란물 접촉이 성 지식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3-54, 전주.

김막희 (2003). 인터넷음란물 접촉실태에 따른 청소년의 성태도·성행동 연구. 인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 15, 38, 김해.

김미경 (2000). 음란물이 청소년의 성태도와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 - 대전지역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 산정논총, 1, 35-54.

김영혜, 이화자, 정향미 (2000). 남자중학생의 컴퓨터 음란물 접촉실태와 접촉반응에 대한 조사연구. 한국간호교육학회지, 6(1), 7-22.

김윤숙 (2003). 인터넷 음란물 접촉에 따른 청소년들의 성의식과 성행동의 차이. 대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4-45, 대전.

김정남, 우혜자 (2001). 일개지역 초등학교 고학년들의 컴퓨터 음란물 접촉실태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간호학회지, 12(1), 150-167.

네이버 어학사전. 음란물. Available: <http://krdic.naver.com/search.nhm>[2007, 10 24]

백경신, 정승교 (2006). 일 지역 여고생의 인터넷 음란물 접촉실태, 성지식, 성태도 및 관련요인 조사. 지역사회간호학회지, 17(3), 376-386.

양돈규, 조남근 (2004). 청소년의 인터넷음란물 접촉 경험과 성비행간의 관계. 중등교육연구, 52(1), 332.

오건호 (2003). 인터넷 음란물 매체가 초등학생의 성의식에 미치는 영향.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77-79, 수원.

오영근, 이춘화 (2001). 사이버공간을 통한 청소년 이성교제 실태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서, (1), 1-291.

윤분희, 정문숙, 한창현, 어윤국 (2002). 고등학생들의 음란물 접촉실태 및 관련요인. 보건복지연구, 7, 45-69.

윤진, 박윤창 (1995). 음란출판물이 청소년의 성행동

- 및 성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이기수 (2000). 음란매체가 초등학생의 성의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6-37, 청원.
- 이명화 (1998). 음란매체 접촉에 따른 성갈등에 성태도와 지식이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5-55, 서울.
- 이정윤, 이명화 (2003). 음란물을 자주 접촉하는 청소년의 성 및 심리사회적 특성. 청소년상담 연구, 11(1), 32-41.
- 임덕심 (2004). 초등학생의 컴퓨터음란물 접촉실태와 대응방안. 청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0-64, 청주.
- 주리애, 하승수, 권석만 (2002). 인터넷 음란물을 자주 찾는 남녀 대학생의 심리적 특성과 성 행동. 한국심리학회, 21(4), 965-982.
- 최명숙, 하나선(2004). 대학생의 성지식, 성태도, 성격형, 성적 자율성에 관한 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0(4), 318-330.
- Cordonnier, V. (2006). Cybersex and addiction : is therapy possible?. Euro J sex, 15(3), 202-209.
- Golden, M. R., Wood, R. W., Buskin, S. E., Fleming, M., & Harrington, R. D. (2007). Ongoing risk behavior among persons with HIV in medical care. AIDS Behav, 11(5), 726-735.
- Manning, J. C.(2006). The impact of internet pornography on marriage and the family : a review of the research. Sex Addict Compulsivity, 13(2/3), 131-165.
- Patricia, G., Deborah, M., & Alexandra, E.(2001). Arch Sex Behav, 30(2). 101-118.
- Quayle, E., Vaughan, M., & Taylor, M. (2006). Sex offenders, internet child abuse images and emotional avoidance. Aggress Violence Behav, 11(1), 1-11.
- Ross, M. (2005). Typing, doing, and being: sexuality and internet. J Sex Res, 42(4), 342-352.
- Young, K. S. (1996). Psychology of computer use: addictive use of the internet. Psychol Rep, 79, 899-902.